



26일 광주를 찾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전남지역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朴 대전서, 文 부산서 첫 유세

7명 후보등록 공식 선거운동 개시…심상정 “文 지지” 후보사퇴

2012 대선  
D-22

18대 대선 후보자 등록이 26일 마감되고 27일 0시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강기원(변호사)·김소연(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김순자(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 을산과학대학부장)·박종선(전 삼협 기획주식회사 사장) 후보 등 모두 7명이 등록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뒤 “제의 사퇴가 사실상 야권의 대표주자가 된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의 열망을 모아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5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는 대전에서, 문재인 후보는 부산에서 각각 첫 유세를 시작하며 공식 선거운동의 첫 페이지를 연다.

◇박근혜=이날 밤 TV토론으로 선거전의 서막을 열었던 박 후보는 첫 유세를 대전역 광장에서 한다. 이어 세종시와 충남 공주·논산·부여·보령, 전북 군산·익산·전주를 돌면서 시장, 역전, 대형마트 앞, 대학가 등지에서 유세를 할 계획이다.

박 후보 측은 또 27일 대전에서 서울·부산·광주를 잇는 전국 동시 발대식을 연다. 대전은 박 후보, 서울은 정동준·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 부산은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정의화 전 국

회부의장, 광주는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한광옥 100%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정현 공보단장이 각각 맡아 ‘4원 생중계’로 수도권·영·호남, 충청을 아우른다는 것이다.

27일 오전 10시 광주공원 광장에서 시작되는 광주지역 발대식에는 광주·전남지역 당원 3000여 명이 참석하며 박 후보가 생방송을 통해 광주시민과 당원들에게 지지를 직접 당부할 예정이다.

‘22일간 유세’의 기본 콘셉트는 ‘소통과 경청’이다. 축제 형태를 바탕으로 정책캠페인을 중점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문재인=공식 선거운동일을 하루 앞둔 문 후보는 이날 충청에 이어 오후에는 광주를 방문, 공식 선거전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이어 27일 선거운동 시작을 알리는 행사 후부

산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집중 유세를 하는 등 첫날부터 강행군을 펼친다.

문 후보 측은 기존의 선전·선동형 유세에서 탈피해 친근하면서도 격의 없이 유권자와 하나 되는 방식의 ‘소통형’ 유세를 계획하고 있다. 연설자가 자기주장만 하고 관중은 목소리만 듣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감성에 다가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 후보 측은 후보 유세단을 비롯해 당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된 중앙 유세단 외에도 자원봉사단과 시민 캠프 인사들이 어우러진 청년 유세단·여성 유세단·노동 유세단 등 다양한 형태의 유세단을 가동하는 ‘게릴라식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광주에서도 민주당은 27일 오후 2시 금남로 옛 도청 앞 광장에서 광주시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선거전에 불을 지핀다.

로켓 하단(1단)에 붙어있는 어댑터 블록은 지난달 20일 첫 번째 발사에 성공한 한국과 러시아 연구진은 지난 17일 도착한 새 어댑터 블록에 대해 실제 상황처럼 6시간 동안 220기압으로 기체를 주입하는 등의 기체 밀봉 시험을 진행해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로호는 27일 오전 8시께 발사체 종합조립동(AC)에서 나와 이송 장치(transporter)에 실려 발사대(LC)로 이동한다. 이어 오전 10시~11시 ‘이동형 온도제어 장치(MTU)’를 통해 발사체 상단(2단) 부에 온도와 습도 조건에 맞는 공기 가 주입된다.

다. 비회원 18홀 기준으로 주중 12만 5000원, 주말 17만 5000원이며, 카트비(4인기준 8만원) 및 캐디비는 별도다.

다.

다.